10. 지형편(地形篇)

무릇 장수는 지형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와 더불어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요강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지형을 알아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둘째,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셋째, 적을 알아야 하고

넷째, 공격할 적절한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孫子曰 地形이 有通者 有掛者 有支者 有隘者 有險者 有遠者하니
손자왈 지형 유통자 유괘자 유지자 유애자 유험자 유원자

손자 말하기를 지형에는 통형(통하는 곳), 괘형(걸리는 곳), 지형(버티는 곳), 애형(좁은 곳), 험형(험한 곳), 원형(먼 곳)이 있다고 하였다.

孫子曰 地形이 有通者 有掛者 有支者 有隘者 有險者 有遠者하니

我可以往하고 彼可以來를 曰 通이니 通形者는 先居高陽하여 利糧道以戰則利하고
아가이왕 피가이래 왈 통 통형자 선거고양 리량도이전즉리

나도 가기 쉽고 적도 오기 쉬운 곳을 통형이라 하니, 통형에서는 먼저 높고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하여, 식량의 보급로를 수월하게 함으로써 싸우면 반드시 이롭다.

我可以往하고 彼可以來를 曰 通이니 通形者는 先居高陽하여 利糧道以戰則利하고

可以往 難以返을 曰 掛니 掛形者는 敵無備어든 出而勝之하고
가이왕 난이반 왈 괘 괘형자 적무비 출이승지

가기는 쉬우나 돌아오기는 어려운 곳을 괘형이라 하니, 괘형에서는 적이 대비가 없으면 나아가 이기도록 하고

可以往 難以返을 曰 掛니 掛形者는 敵無備어든 出而勝之하고

敵若有備하여 出而不勝이면 難以返이니 不利하고
적약유비 출이불승 난이반 불리

만약 적의 대비가 있어서 나아가 이기지 못하면 돌아오기가 어려우므로 불리하다.

敵若有備하여 出而不勝이면 難以返이니 不利하고

我出而不利하고 彼出而不利를 曰 支니 支形者는 敵雖利我나 我無出也하고
아출이불리 피출이불리 왈 지 지형자 적수리아 아무출야

내가 나가도 불리하고 적이 나와도 불리한 곳을 지형이라 하니, 지형에서는 비록 적이 나를 이롭게 하더라도 나가지 말고

我出而不利하고 彼出而不利를 曰 支니 支形者는 敵雖利我나

引而去之하여 令敵으로 半出而擊之면 利하고
인이거지 령적 반출이격지 리

오히려 적을 유인하면서 물러나 적으로 하여금 반쯤 나오게 한 후 이를 공격하면 유리하다.

我無出也하고 引而去之하여 令敵으로 半出而擊之면 利하고

隘形者는 我先居之어든 必盈之하여 以待敵하고
애형자 아선거지 필영지 이대적

애형(산간 협로)에서는 아군이 먼저 장악하여 반드시 충분히 배치한 다음 적을 맞이하고

隘形者는 我先居之어든 必盈之하여 以待敵하고

若敵이 先居之어든 盈而勿從하고 不盈而從之오
약적 선거지 영이물종 불영이종지

만약 적이 먼저 장악한 상태에서 충분히 배치되었으면 들어가지 말고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으면 들어가서 싸운다.

若敵이 先居之어든 盈而勿從하고 不盈而從之오

險形者는 我先居之어든 必居高陽하여 以待敵하고
험형자 아선거지 필거고양 이대적

험형에서는 아군이 먼저 장악하면 반드시 높고 양지 바른 곳을 차지하여 적을 맞이하고

險形者는 我先居之어든 必居高陽하여 以待敵하고

若敵이 先居之어든 引而去之하여 勿從也하며
약적 선거지 인이거지 물종야

만약 적이 먼저 장악했으면 유인하면서 물러나야지 들어가면 안된다.

若敵이 先居之어든 引而去之하여 勿從也하며

遠形者는 勢均하여 難以挑戰이니 戰而不利라
원형자 세균 난이도전 전이불리

원형에서는 이해득실이 균등하므로 싸움을 걸기가 어려우니 먼저 싸우면 불리하다.

遠形者는 勢均하여 難以挑戰이니 戰而不利라

凡 此六者는 地之道也오 將之至任이니 不可不察也니라
범 차육자 지지도야 장지지임 불가불찰야

무릇 이 여섯가지는 지형 활용법으로 장수의 중요 임무니 깊이 살펴야 한다.

凡 此六者는 地之道也오 將之至任이니 不可不察也니라

故로 兵에는 有走者 有弛者 有陷者 有崩者 有亂者 有北者하니
고 병 유주자 유이자 유함자 유붕자 유란자 유배자

그리고 군대에는 주병, 이병, 함병, 붕병, 난병, 배병이 있는데

故로 兵에는 有走者 有弛者 有陷者 有崩者 有亂者 有北者하니

凡此六者는 非天地之災이며 將之過也라
범차육자 비천지지재 장지과야

이 여섯가지 잘못은 자연(천지)의 재앙이 아니라 장수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凡此六者는 非天地之災이며 將之過也라

夫勢均에 以一擊十曰 走오 卒强吏弱曰 弛오 吏强卒弱曰 陷이오
부세균 이일격십왈 주 졸강리약왈 이 리강졸약왈 함

여건이 비슷한데 1로써 10을 공격하면 주병이오, 사졸들이 강하고 간부들이 유약하면 이병이오, 간부들이 강한데 사졸들이 약하면 함병이라 한다.

夫勢均에 以一擊十曰 走오 卒强吏弱曰 弛오 吏强卒弱曰 陷이오

大吏怒而不服하여 遇敵懟而自戰하되 將不知其能曰 崩이요
대리노이불복 우적대이자전 장부지기능왈 붕

장수들이 성을 내어 (부하들이) 통제에 불복하고 적을 만나면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장수가 그 능력을 알지 못하면 붕병이라 한다.

大吏怒而不服하여 遇敵懟而自戰하되 將不知其能曰 崩이요

將弱不嚴하여 敎道不明하고 吏卒無常하여 陳兵縱橫曰 亂이요
장약불엄 교도불명 리졸무상 진병종횡왈 란

장수가 약하여 위엄이 없고, 가르침이 명백하지 못하며, 장병들에게 일정한 절도가 없고, 전투대형이 종횡으로 어지러운 것을 란병이라 한다.

將弱不嚴하여 敎道不明하고 吏卒無常하여 陳兵縱橫曰 亂이요

將不能料敵하여 以少合衆하고 以弱擊强하여 兵無選鋒曰 北니
장불능료적 이소합중 이약격강 병무선봉왈 배

장수가 적을 잘 헤아리지 못하여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과 맞서게 하고, 약한 병력으로 강한 적을 공격케하여, 정예한 선봉부대가 없는 것을 배병이라 한다.

將不能料敵하여 以少合衆하고 以弱擊强하여 兵無選鋒曰 北니

凡此六者는 敗之道也라 將之至任으로 不可不察也라
범차육자 패지도야 장지지임 불가불찰야

고로 이 여섯 가지는 패배하는 지름길이니 장수로서는 중요한 임무인 만큼 살펴야 하는 일이다.

凡此六者는 敗之道也라 將之至任으로 不可不察也라

夫 地形者는 兵之助也니 料敵制勝하고 計險阨遠近은 上將之道也라
부 지형자 병지조야 료적제승 계험액원근 상장지도야

무릇 지형이란 용병을 돕는 것이니, 적을 헤아려 승리 태세를 만들어 가며, 지형의 험하고 좁음과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는 것은 상장군(최고 지휘관)의 도리이다.

夫 地形者는 兵之助也니 料敵制勝하고 計險阨遠近은 上將之道也라

知此而用戰者는 必勝하고 不知此而用戰者는 必敗라
지차이용전자 필승 부지차이용전자 필패

이를 알고 전투에 활용하면 반드시 이기고, 이를 알지 못하여 전투에 활용하지 못하면 반드시 패한다.

知此而用戰者는 必勝하고 不知此而用戰者는 必敗라

故로 戰道必勝이면 主曰無戰이라도 必戰이 可也오
고 전도필승 주왈무전 필전 가야

그러므로 싸움의 정세가 필승일 경우에는 임금이 싸우지 말라 했더라도 반드시 싸우는 것이 용납될 때가 있으며

故로 戰道必勝이면 主曰無戰이라도 必戰이 可也오

戰道不勝이면 主曰必戰이라도 無戰이 可也니
전도불승 주왈필전 무전 가야

싸움의 정세가 이길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금이 반드시 싸우라 했더라도 싸우지 않는 것이 용납될 때가 있다.

戰道不勝이면 主曰必戰이라도 無戰이 可也니

故로 進不求名하며 退不避罪하고 唯民是保而利於主면 國之寶也라
고 진불구명 퇴불피죄 유민시보이리어주 국지보야

그러므로 (독단적으로) 진격함에 명예를 구하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물러섬에 뒷날의 책임추궁을 피하지 않으면서, 오직 백성들을 보호하고 임금에게 이익이 되려 하는 자(장수)가 나라의 보배인 것이다.

故로 進不求名하며 退不避罪하고 唯民是保而利於主면 國之寶也라

視卒如嬰兒故로 可與之赴深谿하고 視卒如愛子故로 可與之俱死니
시졸여영아고 가여지부심계 시졸여애자고 가여지구사

병(兵) 돌보기를 어린아이 돌보듯이 한 까닭에 가히 함께 깊은 골짜기로 진격할 수 있으며, 병(兵) 사랑하기를 자식 사랑하듯이 한 까닭에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視卒如嬰兒故로 可與之赴深谿하고 視卒如愛子故로 可與之俱死니

愛而不能令하고 厚而不能使하며 亂而不能治면 譬如驕子라 不可用也니라
애이불능령 후이불능사 란이불능치 비여교자 불가용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후하게 한다고 일을 시키지 못하며, 어지러워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마치 교만한 자식 같아서 쓸 수가 없다.

愛而不能令하고 厚而不能使하며 亂而不能治면 譬如驕子라 不可用也니라

知吾卒之可以擊하고 而不知敵之不可擊이면 勝之半也라
지오졸지가이격 이부지적지불가격 승지반야

나의 병(兵)들에게 공격할 역량이 있음은 알고 있으나, 적에게 이용할 만한 약점이 없음을 알지 못하면 승리의 확률은 반이다.

知吾卒之可以擊하고 而不知敵之不可擊이면 勝之半也라

知敵之可擊하고 而不知吾卒之不可以擊이면 勝之半也오
지적지가격 이부지오졸지불가이격 승지반야

적에게 이용할 만한 약점이 있음은 알고 있으나, 나의 병(兵)들에게 공격할 역량이 없음을 알지 못해도 승리의 확률은 반이다.

知敵之可擊하고 而不知吾卒之不可以擊이면 勝之半也오

知敵之可擊하고 知吾卒之可以擊하되 而不知地形之不可以戰이면 勝之半也니
지적지가격 지오졸지가이격 이부지지형지불가이전 승지반야

적에게 공격할 약점이 있음을 알고, 나의 병(兵)들에게 공격할 역량이 있음을 알아도, 지형여건 상 싸울 수 없음을 알지 못하면 승리의 확률은 반이다.

知敵之可擊하고 知吾卒之可以擊하되 而不知地形之不可以戰이면 勝之半也니

故로 知兵者는 動而不迷하고 擧而不窮이라
고 지병자 동이불미 거이불궁

그러므로 용병을 아는자는 움직여도 혼란하지 않고, 군사를 일으키면 막히는 것이 없다.

故로 知兵者는 動而不迷하고 擧而不窮이라

故로 曰 知彼知己면 勝乃不殆하고 知天知地면 勝乃可全이니라
고 왈 지피지기 승내불태 지천지지 승내가전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는 위태롭지 않고, (나아가) 천시와 지형까지 알 수 있으면 승리는 가히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故로 曰 知彼知己면 勝乃不殆하고 知天知地면 勝乃可全이니라